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경험에 대한 연구

김정숙¹ · 김성희²

¹여주대학교, 부교수 · ²여주대학교, 교수

A Study on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Jung Sug, Kim¹ · Sung Hee, Kim²

¹*Department of Nursing,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Associate Professor*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Counseling,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4권 제4호 2020년 12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4, No. 4, Dec. 2020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경험에 대한 연구

김정숙¹ · 김성희²

¹여주대학교, 부교수 · ²여주대학교, 교수

A Study on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Jung Sug, Kim¹ · Sung Hee, Kim²

¹Department of Nursing,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Associate Professor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Counseling,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and factors affecting dating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Methods :**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design was used. A convenience sample of 633 college students was recruited in Y colleg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The regression model on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experience was significant($F = 11.25, p < .001$). Thirty-three percent of the variance in the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was explained by the direct effect of data violence awareness($\beta = .36$), dating experience($\beta = .35$), family violence experience($\beta = .18$), gender equality awareness($\beta = -.17$), and age($\beta = .02$). The regression model on physical dating violence experience was significant($F = 5.08, p < .001$). Gender equality awareness($\beta = -.25$), date violence awareness($\beta = .20$), dating period;6~12month($\beta = .18$), dating experience($\beta = .15$), and family violence experience($\beta = .10$) explained 18% of the variance in physical dating violence. The regression model on sexual dating violence experience was significant($F = 4.71, p < .001$). Gender equality awareness($\beta = -.31$), dating period;6~12month($\beta = .22$), dating experience($\beta = .17$), and family violence experience($\beta = .14$) explained 17% of the variance in sexual dating violence. **Conclusion :** Th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strategies and suggest the need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on healthy dating and gender equality awareness in order to prevent dating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Key words : Gender-Based Violence, Awareness, Stud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이행하면서 성인초기의 발달과제를 준비하는 시기로, 자아정체감 확립,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진로 및 직업선택, 이성교제 및 배우자 선택 등의 다양한 과업들을 성취해 나가는 시기이다[1]. 이러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인관계 측면을 보면, 대학생은 동성이나 이성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특히 대학생 시기에는 배우자 선택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이성의 짝을 찾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이성과 교제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이들은 교제를 통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시키며 이성 간에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하고 타인과의 인간관계 기술을 발달시켜 나간다. 이성과의 교제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당사자 간 갈등과 폭력이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의 친밀한 이성교제는 상호작용의 빈도와 상호의존이 높기 때문에 서로 간의 불일치가 일어날 기회가 더 많다. 이때 당사자들이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면 이성간의 데이트 폭력(dating violence)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데이트 폭력은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유형으로는 심리적, 신체적, 언어적, 경제적 및 성적 폭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1]. 따라서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폭력에만 국한하지 않고 점점 더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학자마다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은 만성적이고 폭력의 강도가 점차로 심해지는 특징이 있으며 신체적 상해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 및 불안, 자아존중감 저하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며[2,3], 이후 결혼생활에서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닌다[2,4]. 이처럼 데이트 관계 내에서의 폭력은 단순히 교제하는 기간 동안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 상습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폭력은 다음 세대까지 전이되는 악순환의 연속성을 지니므로 폭력의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 15~50세 미만 여성 13~61%가 전 생애동안 최소 1회 이상 상대방 남성으로 부터 신체적 폭력 피해를 받았고, 5~59% 여성들이 강제적 간음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트 폭력은 미국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연령을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지만 젊은 여성들은 나이가 많은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대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데이트 폭력이나 학대 경험을 나타낸다고 하였다[5]. WHO에 의하면 전 세계 16개국의 31개 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근1년 내 데이트 폭력 경험을 조사한 결과 신체적 폭력경험은 평균 29%(11~45범위)이었고,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는 7%(2~20범위)로 나타났다[6].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실태 연구에 따르면[1], 데이트 폭력 경험 대학생 13명을 대상으로 근거 이론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질문 및 심층면담과 관찰 도중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대신 ‘사랑싸움’이나 ‘다툼’ 그리고 ‘갈등’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고 저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데이트 폭력을 재대로 인식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본인이 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폭력이라는 말에 저항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써 폭력 피해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확한 통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데이트 폭력 조사 결과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인식 저항과 은폐의 속성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시 직접 대면하여 설문하는 방식에서 오프라인을 통한 설문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대학생은 이성교제가 가장 활발한 시기이고, 어떠한 형태로

든 데이트 상대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이 97.4%로[7]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남녀평등인식의 변화와 데이트 폭력의 양상을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변동 추이와 실태를 비교분석하면서 데이트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데이트 폭력에 관한 국내 최근 8년간의 70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8], 연구 대상별로는 대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제별 분석결과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주제의 비중이 높았으며 실증적 연구가 비 실증적 연구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일선 대학교의 지도교수나 학생상담센터의 전문상담사에 의한 상담과 프로그램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절실하지만 각 대학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경험에 대한 최근의 조사 연구가 미흡하므로 최신의 자료가 요구된다. 데이트 폭력 관련 선행연구들은 성장기 가정폭력 경험, 부모의 결혼생활 만족도 인지, 성격 요인, 자아존중감, 성역할 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를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보고 영향 정도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으며[9,10], 자아존중감, 양성평등의식,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연구도 있었다[3-5,11]. 그러나 데이트 폭력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Lee[9]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인식, 폭력 허용도, 집착 등의 정신건강 문제와 자아존중감, 자기분화, 분노, 자기애 등), 가족적인 요인(원가족에서의 폭력 및 학대 경험, 부모의 양육태도 등), 사회적 요인(성역할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학교폭력 경험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개인적인 요인, 가족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영향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큰 변인들을 선정하여 데이트 폭력 경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문제의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데이트 폭력 인식을 살펴보고, 가족 관련 요인으로 부모의 폭력경험과 아동학대 경험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폭력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요인으로 남녀평등의식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였다. 또한, 데이트 폭력 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여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에 있는 학생의 지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개인적 요인(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인식), 가족적 요인(가정폭력 경험), 사회적 요인(남녀평등의식), 그리고 데이트 폭력 경험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개인적 요인(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인식), 가족적 요인(가정폭력 경험), 사회적 요인(남녀평등의식)은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경험에 영향을 주

는 개인적 요인(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인식), 가족적 요인(가정폭력 경험), 사회적 요인(남녀평등의식)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경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Y시에 소재하는 Y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적정 대상자 수의 확인을 위해 G*power 3.1.9.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검정력 .90, 설명변수 15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요구되는 표본 수는 171명이었다. 부실한 응답이 예측되는 온라인 설문조사의 속성과 폭력과 관련된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탈락률을 고려하여 4개 계열, 27개 학과가 포함된 표본을 750명으로 설정하였다. 재학생에게 설문 참여를 요청한 결과 73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95명과 설문조사에 미동의한 후 응답한 11명을 제외한 63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자아존중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기 위해 Rosenberg[12]의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와 Choi[13]의 지각 형성 검사 도구, Do et al[14]의 정신건강 개념을 기본으로 Ahn[15]이 개발한 것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대학생의 주관적인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한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최하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788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22이었다.

2) 데이트 폭력 인식

본 연구는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 정당화와 연인간의 폭력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Lee 등[16]이 사용한 총 4문항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합리적인 데이트 폭력 인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16]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4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655이었다.

3) 가정폭력 경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Ahn[9]과 Shin[17]의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간 폭력의 목격'과 '아동기 학대 경험' 관련 2개 문항으로 가정폭력 경험을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경험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619로 .6 이상인 경우 척도로 사용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 경험 척도로 사용하였다.

4) 남녀평등의식

Lee 등[18]의 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대상으로 개발한 개정 남녀평등의식 축약형(6개 요인별 2문항씩 총 12문항)으로 남녀평등의식 요인으로는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여성 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로 되어있다.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대학생의 주관적인 인식 정도를 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18]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75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75이었다.

5) 데이트 폭력 경험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 et al[19]이 개발한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를 Lim[10]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개 문항으로 하위요인으로는 심리적 폭

력(10문항), 신체적 폭력(8문항), 성적폭력(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응답 방식으로 매우 자주(1점), 자주(2), 보통(3), 가끔(4), 전혀 없음(5)으로 모든 문항이 역채점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경험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Kim[10]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8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87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경기도 Y시에 소재하는 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비확률표본추출 중 임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위해 7개 학부 27개 학과장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참여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학과장을 통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의 목적과 참여를 위한 URL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5. 윤리적 고려

학과에서 전달 받은 URL로 접속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익명성 보장, 연구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안내하였다. 그 후, 설문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도중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익명성 보장, 비밀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할 것인지, 동의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이해 부족으로 설문 참여에 미 동의한 후 설문에 응답한 11명의 응답 자료는 삭제한 후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6.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Ver.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요인과 데이트 폭력 경험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학년별, 계열별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요인, 데이트 폭력 경험의 집단간 차이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요인이 데이트 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과 데이트 폭력 경험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들이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들에 위배 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VIF를 산출하여 확인하였으며, 잔차들 간의 관련성은 Durbin-Watson 값을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20.53세이었다. 성별은 남학생이 52.6%로 여학생에 비해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 47.7%, 2학년 39.3%로 87.0%가 1~2학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은 자연과학계열 40.6%, 공학계열 36.0%로 주를 차지하였으며, 경제상황은 보통이다 55.0%, 좋은 편이다 23.2%의 순이었다. 그동안 만났던 이성교제경험의 경우 2~3명 30.3%, 4~5명 23.1%, 1명 13.3%였으며, 평균 이성교제 기간은 3~6개월 미만 22.4%, 7~12개월 미만 17.9%, 1년~2년 미만 17.7%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특성을 종합하면 자연과학계열과 공학계열의 1,2학년 학생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교제한 이성은 2~5명이며, 평균 3개월~2년 미만 동안 이성을 만난 경험이 있는 특성을 보였다.

2. 대상자의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 데이트 폭력 경험

대상자의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은 평균 3.03점(4점 만점)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데이트 폭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관련된 데이트 폭력 인식은 평균 1.35 (4점 만

점)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적 특성인 가족폭력 경험은 평균 1.65(4점 만점)로 부모의 폭력 목격이나 아동학대 경험이 비교적 적었다. 사회적 특성인 남녀평등의식의 경우 평균 4.25(5점 만점)로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경험은 심리적 데이트 폭력 경험 1.92(5점 만점), 신체적 데이트 폭력 경험 1.67(5점 만점), 성적 데이트 폭력 경험 1.66(5점 만점)으로 심리적 데이트 폭력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성적 데이트 폭력 경험이 가장 낮았다.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데이트 폭력 경험 무’로 처리하여 데이트 피해 경험 유무를 살펴본 결과 심리적 데이트 폭력 경험은 78.5%, 신체적 데이트 폭력 경험은 36.7%, 성적 데이트 폭력 경험은 28.1%로 심리적 데이트 폭력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633)

Variables	Categories	N	%
Age(yr)	20.53±3.50		
Gender	Male	333	52.6
	Female	300	47.4
Grade	1st	302	47.7
	2nd	249	39.3
	3rd	58	9.2
	4th	24	3.8
Major	Engineering Sciences	228	36.0
	Humanities & Social Sciences	91	14.4
	Art & Physical Sciences	57	9.0
	Natural Sciences	257	40.6
Economic situation	Very difficult	19	3.0
	Difficult	90	14.2
	Normal	348	55.0
	Good	147	23.2
	Very good	29	4.6
Dating experience	1 person	84	13.3
	2~3 person	192	30.3
	4~5 person	146	23.1
	6~7 person	0	0.0
	8~9 person	44	7.0
	≥10 person	61	9.6
	No	106	16.7
Dating period	<3 months	91	14.4
	3~6 months	142	22.4
	7~12 months	113	17.9
	1~2 years	112	17.7
	>2 years	60	9.5
	No	115	18.2

*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Levels of individual factor, family factor, social factor, dating violence experience

Variables	Categories	n	M±SD (range)/%
Individual factor	Self-esteem	633	3.03±0.53 (1~4)
	Dating violence awareness	633	1.35±0.49 (1~4)
Family factor	Family violence experience	633	1.65±0.75 (1~4)
Social factor	Gender equality awareness	633	4.25±0.69 (1~5)
Dating violence experience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633	1.92±1.07 (1~5)
	Physical dating violence	633	1.67±1.27 (1~5)
	Sexual dating violence	633	1.66±1.31 (1~5)
Dating violence status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Yes	497 78.5
		No	136 21.5
	Physical dating violence	Yes	232 36.7
		No	401 63.3
	Sexual dating violence	Yes	178 28.1
		No	455 71.9

*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Differences between groups by gender, grade, major

Variables		n	Self-esteem		Dating violence awareness		Family violence experience		Gender quality awareness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Physical dating violence		Sexual dating violence	
			M±SD	t/F(<i>p</i>)	M±SD	t/F(<i>p</i>)	M±SD	t/F(<i>p</i>)	M±SD	t/F(<i>p</i>)	M±SD	t/F(<i>p</i>)	M±SD	t/F(<i>p</i>)	M±SD	t/F(<i>p</i>)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Gender	Male	333	3,17±0,50	7,73	1,34±0,50	-0,77	1,63±0,75	-0,93	4,04±0,70	-8,34	1,98±1,15	1,44	1,80±1,37	2,62	1,77±1,43	2,25
	Female	300	2,86±0,51	(<i><.001</i>)	1,37±0,48	(.439)	1,68±0,76	(.354)	4,48±0,60	(<i><.001</i>)	1,86±0,97	(.152)	1,53±1,15	(.009)	1,54±1,15	(.025)
Grade	1st ^a	302	3,06±0,53	2,96	1,25±0,40	12,78	1,62±0,75	1,12	4,30±0,62	2,98	1,59±1,22	3,01	1,81±1,04	1,11	1,59±1,25	1,45
	2nd ^b	249	3,02±0,54	(0,53)	1,43±0,54	(<i><.001</i>)	1,66±0,75	(.328)	4,17±0,76	(.051)	1,73±1,30	(.050)	2,01±1,11	(.331)	1,68±1,33	(.236)
	≥3rd ^c	82	2,90±0,49		1,47±0,56	a<bc	1,76±0,77		4,29±0,68		1,77±1,38		2,04±1,03		1,86±1,43	
Major	Engineering Sciences ^a	228	3,20±0,52	16,42	1,38±0,56	5,14	1,65±0,76	1,09	4,10±0,74	12,39	1,83±1,41	1,92	2,02±1,19	2,80	1,79±1,44	2,00
				(<i><.001</i>)		(.002)		(.354)		(<i><.001</i>)		(.125)		(.039)		(.112)
	Humanities & Social Sciences ^b	91	3,06±0,53	bcd<a, cd<ab	1,34±0,46	abd<c, bd<ac	1,78±0,84		4,13±0,70	abc<d	1,48±1,02		1,79±0,91		1,46±1,06	
	Art & Physical Sciences ^c	57	2,91±0,55		1,56±0,60		1,63±0,83		4,16±0,79		1,84±1,35		2,05±1,14		1,80±1,80	
	Natural Sciences ^d	257	2,89±0,49		1,29±0,38		1,62±0,70		4,44±0,56		1,56±1,19		1,84±0,99		1,58±1,58	

* M=Mean; SD=Standard deviation

3. 대상자의 성, 학년, 계열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대상자의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과 데이트 폭력 경험에 따른 성별, 학년별, 계열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성별($t=7.73$, $p<.001$), 계열별($F=16.4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계열별의 경우 공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과학계열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데이트 폭력 인식의 경우 학년($F=12.78$, $p<.001$)과 계열($F=5.14$,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학년과 3학년이 1학년에 비해 비합리적인 데이트 폭력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남녀평등의식은 성별($t=-8.34$, $p<.001$), 계열별($F=12.39$, $p<.001$)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남녀평등의식이 높았으며, 자연과학계열의 남녀평등의식이 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심리적 데이트 폭력 경험은 학년($F=3.01$, $p=.05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 데이트 폭력 경험은 성별($t=2.62$, $p=.009$), 계열별($F=2.80$, $p=.039$)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 데이트 폭력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성적 데이트 폭력 경험은 성별($t=2.25$, $p=.02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 데이트 폭력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데이트 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학년, 계열, 경제 형편, 이성교제 경험, 이성교제 기간), 개인적 특성(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인식), 가족적 특성(가정 폭력 경험), 사회적 특성(남녀평등의식)을 예측변수에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예측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및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와 VIF값이 각각 0.1 이상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Dubin-watson 값이 2에 가까워 오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어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였고, 선행성, 오차항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 가정도 만족하여 다중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이 회귀모형에 적합하였으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Fating Violence Experience

Variables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Physical Dating Violence				Sexual Dating Violence			
			B	S.E	β	t(p)	B	S.E	β	t(p)	B	S.E	β	t(p)
Demographic factor	(Constant)		.90	.41		2.21(.028)	1.60	.48		3.37(.001)	1.78	.53		3.37(.001)
	Gender(Female)		-.11	.07	-.10	-1.63(.104)	-.02	.08	-.02	-0.28(.782)	-.12	.09	-.09	-1.31(.192)
	Age		.02	.01	.11	2.19(.029)	-.00	.01	-.02	-0.33(.742)	-.00	.01	-.01	-0.13(.901)
	Grade(≥ 3 rd)	1st	.08	.09	.07	0.83(.409)	.04	.11	.03	0.36(.720)	.05	.12	.03	0.37(.709)
		2nd	.02	.09	.02	0.27(.790)	.02	.10	.01	0.15(.880)	-.02	.12	-.01	-0.16(.874)
	Major (Art & physical sciences)	Engineering sciences	.04	.12	.04	0.38(.701)	.07	.14	.05	0.52(.603)	.06	.15	.04	0.39(.696)
		Humanities & social sciences	-.17	.12	-.11	-1.41(.161)	-.16	.14	-.10	-1.17(.246)	-.21	.16	-.11	-1.31(.191)
		Natural sciences	.01	.11	.01	0.07(.941)	-.04	.12	-.03	-0.29(.774)	-.03	.14	-.02	-0.18(.854)
	Economic Situation (difficult)	Normal	-.04	.07	-.04	-0.62(.538)	.01	.08	.03	0.06(.953)	-.05	.09	-.04	-0.55(.582)
		Good	.01	.08	.01	0.17(.863)	.12	.10	.00	1.20(.236)	.08	.11	.05	0.72(.472)
Dating experience ≥ 4 (< 3)		.35	.05	.30	6.82($< .001$)	.15	.06	.08	2.46(.014)	.17	.07	.12	2.50(.013)	
Dating period(≤ 6)	7~12	.03	.07	.02	0.51(.611)	.18	.08	.12	2.33(.002)	.22	.09	.13	2.47(.014)	
	> 12	-.00	.06	-.00	-0.07(.950)	.03	.07	.02	0.43(.671)	.04	.08	.03	0.48(.633)	
Individual factor	Self-esteem		.05	.06	.05	0.90(.370)	.08	.07	.06	1.14(.257)	.12	.07	.09	1.56(.120)
	Dating violence awareness		.36	.07	.25	4.96($< .001$)	.20	.09	.13	2.36(.019)	.14	.09	.08	1.43(.153)
Family factor	Family violence experience		.18	.04	.22	4.65($< .001$)	.10	.05	.02	2.28(.023)	.14	.05	.15	2.86(.004)
Social factor	Gender equality awareness		-.17	.05	-.18	-3.42(.001)	-.25	.06	-.25	-4.40($< .001$)	-.31	.06	-.28	-4.79($< .001$)
F			11.25($< .001$)				5.08($< .001$)				4.71($< .001$)			
R			.57				.42				.41			
R ²			.33				.18				.17			
Adj R ²			.30				.14				.13			
DW			1.56				1.764				1.89			

며, 특이값을 진단하기 위해 Cook's distance 값을 확인한 결과 1.0을 초과하지 않아 회귀식의 기본가정이 모두 충족되어, 회귀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 경험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심리적 데이트 폭력 경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11.25, p<.001$), 설명력은 30%였다. 데이트 폭력 인식($\beta=.36$), 이성교제 경험($\beta=.35$), 가정폭력 경험($\beta=.18$), 남녀평등의식($\beta=-.17$), 연령($\beta=.02$)이 심리적 데이트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합리적 데이트 폭력 인식이 높을수록, 교제한 이성이가 3명 이하인 경우에 비해 4명 이상인 경우, 가정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낮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심리적 폭력 경험이 많았다. 신체적 데이트 폭력 경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5.08, p<.001$), 설명력은 14%

였다. 남녀평등의식($\beta=-.25$), 비합리적 데이트 폭력 인식($\beta=.20$), 이성교제 기간($\beta=.18$), 이성교제 경험($\beta=.15$), 가정폭력경험($\beta=.10$)이 신체적 데이트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평등의식이 낮을수록, 비합리적 데이트폭력 인식이 높을수록, 이성교제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 비해 6~12개월인 경우, 교제한 이성이가 3명 이하인 경우에 비해 4명 이상인 경우, 가정폭력 경험이 높을수록 신체적 폭력 경험이 많았다. 성적 데이트 폭력 경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4.71, p<.001$), 설명력은 13%였다. 남녀평등의식($\beta=-.31$), 이성교제 기간($\beta=.22$), 이성교제 경험($\beta=.17$), 가정폭력 경험($\beta=.14$)이 성적 데이트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평등의식이 낮을수록, 이성교제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 비해 6~12개월인 경우, 교제한 이성이가

3명 이하인 경우에 비해 4명 이상인 경우, 가정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성적 폭력 경험이 많았다.

I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경험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에 있는 학생의 지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은 평균 3.03점(4점 만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비합리적인 데이트 폭력 인식은 평균 1.35(4점 만점)로 낮은 편이었다. 가족적 요인인 가정폭력 경험은 평균 1.65(4점 만점)로 낮은 편이었으며, 사회적 요인인 남녀평등의식은 평균 4.25(5점 만점)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경험은 심리적 데이트 폭력 경험 1.92(5점 만점), 신체적 데이트 폭력 경험 1.67(5점 만점), 성적 데이트 폭력 경험 1.66(5점 만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데이트 피해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데이트 폭력 경험 무’로 처리하여 살펴본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 유무의 경우 심리적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 78.5%, 신체적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 36.7%, 성적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 28.1%였다. 심리적 데이트 폭력은 5명 중 4명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생활에 만연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적 데이트 폭력 경험은 37.4%로 3명 중 1명은 신체적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성적 데이트 폭력도 4명 중 1명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데이트 피해 경험에 대한 한국 여성의전화(2016) 조사에서 61.6%가 폭력피해(통제/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 경험이 있다는 결과에 비해 다소 높고[20], Kang과 Park[21]의 서울시 거주 여성의 88.5%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결과와 Cho와 Kim[7]의 결과에 비해 다소 낮았다. 한국 여성의전화(2016) 조사결과에서는 폭력 피해 경험이

통제, 성적 폭력,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순으로 나타난[20] 반면, Cho와 Kim[7]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순으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여성의 전화[20]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인 반면 Cho와 Kim[7]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데이트 폭력은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22]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대학생들이 경험한 데이트 폭력 피해는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Jung[1]의 연구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이란 말 대신 ‘사랑싸움’이나 ‘다툼’, 그리고 ‘갈등’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는 것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저항 및 회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데이트 폭력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데이트 폭력 경험은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 및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2,3]가 있으며, 데이트 폭력 피해 학생들이 데이트 폭력 시 대처 방법, 데이트 관계 지속 방법, 갈등 시 관계기술 방법, 헤어지는 방법 등에 대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요구한다는 연구[29]가 있으므로, 각 대학교의 학생상담지원센터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 학년별, 계열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인식, 가정폭력 경험, 남녀평등의식, 그리고 데이트 폭력 경험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여학생인 경우에 비해 남학생인 경우, 공학계열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반면, 자연과학계열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이기는 하나 아직도 가부장제 문화가 잔존해 있는 사회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성장과정에서 평가 절하되는 경험이 많았을 것이며, 이로 인해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과 계열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3,30]와는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표본의 크기가 극히 작고 계열 분류의 경우 보건의료 계열과 비보건의료로 구분하여 계열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남녀평등의식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았으며, 자연과학계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Kim 등[3]과 Choi 등[3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신체적 데이트 폭력과 성적 데이트 폭력 경험은 남학생이 높았는데, 남학생의 경우 신체적 폭력의 강도는 높으나 빈도는 낮은 반면 여학생은 꼬집기, 물건으로 때리기 등의 행위로 강도는 낮으나 빈도가 잦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여성의 신체적 데이트 폭력 가해가 상당 부분 상대의 폭력에 방어의 수단이라는 Lim 등[25]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트 폭력은 사소한 신체적 접촉도 포함되므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 실시 시 폭력의 범위와 해당 행위에 대한 사례를 통한 상세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학생은 폭력을 행사해도 되고 남학생은 안 된다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데이트 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데이트 폭력을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심리적 데이트 폭력 경험은 설명력이 30%인 반면 신체적 폭력 경험은 14%, 성적 데이트 폭력 경험은 13%이었다. 심리적 데이트 폭력 경험에 비해 신체적 폭력 경험과 성적 데이트 폭력 경험의 설명력이 낮은 것은 심리적 데이트 폭력에 비해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은 은폐하고 싶은 경향[1]을 갖고 있으며, 복잡한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적 연구로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심리적 데이트 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데이트 폭력 인식, 이성교제경험, 가정폭력 경험, 남녀평등의식, 연령의 순이었다. 비합리적인 데이트 폭력 인식이 높을수록, 이성교제경험이 많을수록, 가정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낮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심리적 데이트 폭력 경험이 많았다. 신체적 데이트 폭력 경험의 경우 남녀평등의식이 낮을수록, 비합리적인 데이트 폭력 인식이 높을수록, 이성교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비해 6~12개월인

경우, 이성교제경험이 많을수록, 가정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적 데이트 폭력 경험이 많았다. 성적 데이트 폭력 경험의 경우 남녀평등의식이 낮을수록, 이성교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비해 6~12개월인 경우, 이성교제 경험이 많을수록, 가정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성적 데이트 폭력 경험이 많았다. 이를 통해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는 인구학적 특성 중 이성교제 경험, 개인적 요인 중 비합리적 데이트 폭력 인식, 가족적 요인의 가정폭력 경험, 사회적 요인의 남녀평등의식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데이트 폭력 경험에는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이성교제 경험은 데이트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되므로 중요한 요인이므로[23,24] 이성에 대한 관심과 이성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비합리적 데이트 폭력 인식이 데이트 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인식이 높고 관계만족도가 낮은 경우 데이트 폭력 경험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25]와 일치한다. 남녀평등의식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경험이 낮다는 결과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특히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Kim과 Om[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데이트 관계를 개인의 원가족과 앞으로 형성될 가정 사이를 연결하는 단계로 개념화한 Makepeace[24]는 원가족에서의 직접 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발생과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이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4,27]와 일치하였다.

Shin[22]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데이트 폭력 사건을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대부분 심리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보고하였으나 폭력사건의 상대방과 폭력사건 직후 헤어지지 않고 관계를 유지한 대

상자도 절반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 대학생들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교육의 부재로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성과 관련된 지식과 태도, 이성관계에서의 갈등 관리를 내용으로 한 데이트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8,28]가 수행되고 있다. Lee[8]에 의하면 웹 활용 데이트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도, 성역할 태도, 공격성과 분노에 있어 효과성이 검증되었고, 데이트 폭력 피해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피해 극복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29]를 고려할 때,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비합리적인 데이트 폭력인식과 남녀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데이트 폭력과 남녀평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데이트 폭력 근절과 남녀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이 주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가 있는 Y시 소재 대학의 경우 데이트 폭력 관련 교육이 성폭력 교육과 가정폭력 교육 중심으로 연1회 온라인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교육의 효과를 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의식변화와 행동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 경험은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혼 후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2,7]함으로 가정폭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단절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내적 힘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에 의해서는 학생상담지원센터에서 가족상담을 진행하거나 학교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가족상담을 운영하는 연계방안에 대한 대안모색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생상담지원센터 상담전문가와 대학 내 전문가가 협력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경험 정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지도 방안 모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Y시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심리적 데이트 폭력에는 데이트 폭력 인식, 이성교제 경험, 가정폭력 경험, 연령, 남녀평등의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적 데이트 폭력에는 데이트 폭력 인식, 이성교제 기간, 이성교제 경험, 가정폭력 경험, 남녀평등의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성적 데이트 폭력에는 이성교제 기간, 이성교제 경험, 가정폭력 경험과 남녀평등의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데이트 폭력에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가족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주요한 영향 요인임을 밝혀내는 성과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인식 개선이 다각도로 필요하다고 본다. Y시 소재 대학의 경우 학생상담지원센터에서 재학생의 성폭력·가정폭력 의무교육이 년 1회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원하는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이성교제 교육과 데이트 폭력 관련 자가진단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나 재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학생상담센터를 찾아오는 데이트 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유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필요에 의해서는 가족 상담까지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 재학생 대상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재학생의 데이트 폭력 실태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시작된 연구이므로 Y대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COVID-19로 대면·비대면 수업이 병행하여 진행되는 시기에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한 것으로 온라인 매체에 대한 피로도로 인해 조사

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이 연구의 한계라 생각된다. 추후 타 대학 재학생을 연구에 포함시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설문조사와 함께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ferences

1. Jung CA.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xual assertiveness on dating violence experience among students[Dissertation]. Kyung Sung University; 2017. p1-158.
2. Kang HS, Lee ES. Predictive factors for perpetrations of dating viol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14;23(4):288-298. <http://dx.doi.org/10.12934/jkpmhn.2014.23.4.288>.
3. Kim BK, Kim HK, Lee AY, Kim TW, Park JH, Kim DU. The effect of equality of both sexes and self-esteem on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Oil & Applied Science*. 2018;35(3):768-777. <https://doi.org/10.12925/jkocs.2018.35.3.768>
4. Choi YK, Song WY. The effects of college women's domestic violence experiences on dating violence exposure: Mediated effect of explicit and implicit gender stereotype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4;19(4): 433-446.
5. World Health Organization. Preventing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 2010. https://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publications/violence/9789241564007_eng.pdf?ua=1
6. Murray AS.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2004;10(7):790-811. <https://doi.org/10.1177/1077801204265552>
7. Cho WY, Kim KH. The effects of childhood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on dating violence moderating effects of adult attachment style. *Korea Academy of Family Social Work*. 2015; 49:71-96.
8. Lee HJ. An analysis of recent research on dating violence in Kore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18;8(4):153-161.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4.153>
9. Ahn GYR. Personal risk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02;9, 55-75. <http://kiss.kstudy.com.openlink.khu.ac.kr:8080/thesis/thesis-view.asp?key=1944699>
10. Kim JN. College students' dating violence and coping behavior.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1999.p.1-116.
11. Lee SW, Nam JS. Verification victimization factors of dating abuse of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experience of exposure of domestic violence.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2018;14(4), 53-72. <http://dx.doi.org/10.25277/KCPR.2018.14.4.53>
12. Rosenberg M. Which significant others. *American Behavior Scientist*. 1973.
13. Choi CH.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perceptual improvement test. *Yonsei University Journal Paper*. 1972;9:67-85.
14. Do BN, Lee GJ, Oh KO, Ahn HL, Kim HJ, Kim MY, et al.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I)*. Seoul: Jeongdam Media. 2000.
15. Ahn HR. Factors influencing the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s of psychiatric patients in nursing student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ournal Paper*. 1993;32(2), 243-258.
16. Lee HJ, Yoon MS, Kim YE, Lee SY.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college students' tolerance and recogni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18;8(3),

- 115-125.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3.115>
17. Shin HS. Relationships among dating violence, family violence and peer violence report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ents Guidance and Counseling of Dongduk Women's University*. 2006; 25,117-130.
18. Lee SY, Kim IS, Ko JH. Development of a revised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Ⅱ): Confirmation of items, standardization and a manual development,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8. October. Report No: RR 2003-15-3.
19. Murray AS, Hamby SL, Boney-McCoy S, Sugarman DB.(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Issues*.17(3), 283-316. <https://doi.org/10.1177/019251396017003001>
20. Son MS, Cho JY. Survey of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Internet]. Seoul: Korea Women's Hot Line; c2016 [cited 2018 Mar 13].Available from: http://hotline.or.kr/board_statistics/28328.
21. Kang HY, Park SJ.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victims of dating violence of women in Seoul.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017. <http://www.seoulwomen.or.kr/>
22. Shin SR. A case study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ating violence victims in.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2018;4(2):47-62. <http://dx.doi.org/10.25277/KCPR.2018.14.2.47>
23. Cate RM, Henton JM, Koval J, Christopher FS, Lloyd S.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1982;3: 79-90.
24. Makepeace JM.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1981;30:97-102.
25. Lim CY, Jeong SY, Lee MS. The effects of violence perception on dating viol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2010;35:147-179.
26. Kim EK, Om AS. The mediate effect of patriarchal attitudes between family violence witness and dating sexual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2010;15(4): 759-777.
27. DeMaris A. The dynamics of generational transfer in courtship violence: A biracial explo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990;52(1):219-231.
28. Theriot MT.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 for assessment and preven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and stalking at school. *Children & Schools*. 2008;30: 223-233.
29. Son KS. For college students who experienced dating violence a study on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2017;14(2):19-42.
30. Choi YS, Lee EH, Lee EJ. Self-esteem, gender-stereotype activation, violence perception, and date violence coping types among college students.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2017;21(1):23-33.